



66년 전통 '예술꿈나무들의 등용문'

'호남예술제' 열린다

'예술꿈나무들의 등용문' 호남예술제가 올해로 66회를 맞았다. 광주일보사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가 지역 예술 꿈나무 발굴과 육성을 위해 창간 4년째를 맞은 1956년 동방극장(옛 무등극장)과 서석초등학교에서 시작한 호남예술제는 광주·전남 뿐 아니라 명실상부 전국을 대표하는 종합예술제로 수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했다.

제66회 호남예술제가 27일부터 5월 23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호남신학대학교 등에서 열린다.

올해는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합창·합주 등 대규모 단체 부분의 경연은 취소됐으며, 미술·작문 등 부문은 공모전으로 전환해 진행한다.

이번 경연은 음악(성악·기악·양상블), 무용(클래식 발레·장작 발레·현대무용·한국창작무용 등), 국악(기악·성악·기악·타악 등), 미술(회화·한국화)·작문(산문·운문), 만화에니메이션(간만화·일러스트레이션)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다.

미술(회화·한국화)·작문(산문·운문), 만화에니메이션(간만화·일러스트레이션) 부문은 오는 7월 1일부터 8일까지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27일~5월 23일,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만화 부문

합창·합주 등 단체부문 취소, 미술·작문은 공모전으로 전환

후 작품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미취학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재작 그리기 축제'도 오는 7월 1~8일 그림을 접수받는다.

부문별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에 당일 날 공지하며 다음날 발행되는 광주일보 지면(문화면)에도 발표한다.

그동안 참여 인원만 58만 명에 이르는 호남예술제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이들의 꿈을 키워준 텃밭이었다. 각 부문 수상자들은 현재 문화계에서 아티스트로, 교육자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60회 부조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문지영과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김남윤 한예종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원장(바이올린), 김선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무용), 강연근 화백 등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호남예술제를 거쳤다. 특히 의재 허백련, 오지호, 시인 김현

승, 무용가 옥파일 등 유명 예술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예술제의 위상을 높였다.

교육자로는 강숙자·정애련·박계·조수현·길애령·김진숙·김혜경·서영화·박행숙씨 등이 대표적이다.

무용 부문에서는 김선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호남예술제를 통해 꿈을 키웠다. 초·중·고 시절 5차례 최고상을 수상했던 김 교수는 모란 발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입상한 한성우 등 수십 명의 제자들을 길러냈다. 또 무용계 출신으로는 뉴욕 '덤보댄스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 현대 무용가 김영순과 서차영·김화례·김화숙·김미숙·임지형·박준희·정희자·박선옥 등이 눈에 띈다.

그밖에 화가 강영근·최영훈, 시인 고재중·양성우 등도 호남예술제 출신이다.

문의 062-220-052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자연·동물과 동행 '넓고 깊은, 나의 정원'

김성민 초대전, 5월 10일까지 광주여성전시관 허스토리

'멈추지 않는 시도,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장에 예술인의 작품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그 의미를 향유하기 위한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오

는 5월 10일까지 재단 3층 광주여성전시관 허스토리(Herstory)에서 김성민 초대전 '넓고 깊은, 나의 정원'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사람과 동물을 통한 대상의 본질 탐구를 통해 자연과 합일하는 작가의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알아보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민주·평화의 정신을 되새겨 보고자 기획됐다.

그는 사람과 동물, 정물 세 가지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사람에는 작가 내면의 모습을 투영했으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양이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동물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 화분, 가방 등을 그린 정물화는 작고 사소한 사물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다.

김 작가는 "그림은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매개체"라며 "이번 전시에서는 코로나 시대, 자연·동물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민 작가는 목포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문의 062-670-056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인문대 고양이'



'호랑가시나무-꽃이 피다'

자투리 천으로 '호랑가시나무 열매맺다'

최희영 기획전, 28일~5월 9일 양림미술관

광주 양림동을 상징하는 것 중의 하나가 광주시기념물 제 17호 '호랑가시나무'다. 근대 광주 기독교 문화의 상징인 양림동에 선교사들이 가져다 심었다고 전해지는 호랑가시나무는 잎사귀가 호랑이 발톱처럼 뾰족해 무섭게 생겼지만 재앙을 물리치고 가정에 재물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주술적 의미가 담긴 나무로 알려져 있다.

호랑가시나무를 주제로 한 독특한 기획 전시가 오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12일간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호랑가시나무 열매맺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최희영 작가는 호랑가시나무에 새 잎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의 과정을 천연염색한 섬유와 실, 비즈, 철사 등을 사용해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가는 캔버스에 천연 염료를 칠한 후 염료에 따라 나

타나는 미묘한 색깔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오래전부터 호랑가시나무를 소재로 작품을 구상해온 작가는 잎이나 꽃이피다 열매맺다 등 시리즈 작업을 통해 누빔과 중첩, 플라주, 소잉 등 다양한 창작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재료로 실코공장에서 실코를 생산하고 버리는 자투리를 쪽, 락, 꼭두서니 등 천연 염료로 염색해 작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자연의 지속가능한 업사이클링의 메시지를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조선대 사범대 미술교육과와 조선대 디자인대학원 섬유디자인과를 졸업한 최 작가는 지금까지 5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한국공예가협회, 광주전남섬유조형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통문화관 28일까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다양한 행사 등을 소개할 '전통통신사'를 28일까지 모집한다.

'전통통신사'는 전통문화관에서 진행되는 행사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제작하고 전통문화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올해는 영상, 사진 촬영 담당 등 총 2명을 선발해 SNS 홍보 제작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전통문화예술 사진촬영·영상편집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시 거주자 청년이며 전통문화예술 전공자, SNS 운영 유경험자, 사진촬영·영상편집 유경험자는 우대한다. 활동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최종선정된 '전통 통신사'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되고 사진촬영 담당은 월 50만원, 동영상 담당은 월 100만원 씩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희망자는 신청서 등을 문화재단 또는 전통문화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june524@gjcf.or.kr)로 접수해야 한다. 문의 062-670-850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전 11시 '지구에게 보내는 음악편지'

광주문예회관, 29일 소프라노 박혜상 첫 공연

지난해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관객과 만난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이 올해도 계속된다.

11시 음악산책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음악가들을 소개하고, 이들과 함께 음악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올해 주제는 '지구에게 보내는 음악편지'다.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술의 힘으로 지구를 위한 메시지를 전해 보자는 발상에서 출발했다.

지구에게 보내는 첫 번째 음악편지는 소프라노 박혜상(사진)이 떠온다. 오는 29일 오전 11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박혜상의 사랑스런 것 들을 위한 노래'를 제목으로 과거 작곡가들이 노래라는 타임캡슐 안에 포착해 둔 사랑스러운 자연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서울대와 뉴욕 줄리아드 음악원을 졸업한 박혜상은 2015년 플라시도 도밍고가 주최한 오페랄리아 콩쿠르 2위에 오르며 스타덤에 올랐다. LA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 주요 오페라 하우스에 서고 있으며 최근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앨범을 발매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나무그늘에서의 한때를 노



래한 헨델의 'Ombra mai fu'를 시작으로 슈만의 '봄의 노래', 비제의 '무당발레', 포레의 '달빛' 등 자연을 중심으로 한 노래들을 들려준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가 반주자로 무대에 오르며, 지난해 11시 음악산책 진행을 맡은 KBS 이상형 아나운서가 올해도 함께한다.

11시 음악산책 다음 무대에는 싱어송라이터 심규선이 오르며, 뮤지컬 배우 신영숙,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 등의 공연이 예정돼있다.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3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